

전라감영 복원 베일 벗다

전주시, 선화당 위치 확인
청사진·역사자료와 일치

조선시대 호남과 제주를 관할하던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 등 전라감영 내 주요건물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주시는 2일 옛 전라북도청사 부지인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치고 관계분야 전문가와 일반시민에게 발굴조사 결과를 설명회를 가졌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이 주관한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는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전라감영 복원 예정지 전체면적(1만6117㎡) 중 지하층이 있는 경찰청동과 지난 2006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9115㎡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발굴조사의 내용과 국가 기록원에 소장된 구 도청사 도면, 전문가 고증 및 자문 등을 통해 전라감영 복원의 핵심건물인 선화당의 위치를 확인했다.

선화당의 위치를 추정했던 첫 번째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각각 지난 1928년과 1937년에 1/300 축적으로 그려진 전라북도 구도청사 도면이다.

이 자료들은 전라북도에서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 공사를 위해 예산을 신청한 문서철에 들어 있는 도면으로 선화당이 표기돼 있어 선화당의 위치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됐다.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현 부지 내에서 선화당의 위치를 측량한 결과 기준점이 되는 산업장려관으로부터 남쪽으로 13.6m 이격되어 있고 크기는 정면으로 21.3m에 달하고, 측면은 10.4m로 확인됐다. 시와 연구원 등은 이러한 내용은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전주시는 2일 옛 전라북도청사 부지인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마치고 관계분야 전문가와 일반시민에게 발굴조사 결과를 설명회를 갖고 있다.

재확인했다. 두 번째 자료는 조사를 통해 발견된 우물과 내삼문에서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인도시설(담도)로 일제강점기 도면에 표기된 우물의 위치가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게 되면서 선화당의 위치를 확정하는 자료로 작용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회화나무 인근 고려시대 건물터 1개소와 선화당 추정터 남동쪽 1개소 등 2개의 우물이 조사됐고 이중 선화당 남동쪽에 위치한 우물은 1928년과

1937년 도면에도 표기돼 있어 선화당의 위치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점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내삼문과 6방 비장의 사무소인 비장청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적심시설이 발굴됐다. 내삼문의 적심시설들은 고지도에 표기된 것처럼 선화당과 선화당 남쪽에 있는 인도시설과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내삼문 동쪽으로는 적심시설과 아궁이 등 조선시대 건물터가 확인돼 고지도에 나와 있는 건물의 배

치양상으로 보아 비장청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발굴조사에서는 선화당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내삼문에서 선화당으로 이어지는 인도시설의 일부가 선화당 추정터의 남쪽에서 발굴됐다. 선화당 북쪽에서는 전라감사 가족의 처소인 내이의 기단석과 부석시설, 연도부 등이, 선화당 동쪽에서는 지난 1928년 도면에 표기된 관공각과 관련된 기단석이 각각 발견되기도 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대병원 서만욱 교수 '공로상'

임상신경생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수상

전북대학교 병원(병원장 강명재) 신경과 서만욱 교수가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계 개최된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서 교수는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에 '본태성 진전에서 시각의 영향' 등 많은 연구 결과를 발표해 학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서만욱 교수는 제33대 대한신경과학회 회장(2015-2016), 제11대 대한치매학회회장을 수행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영재 기자

'가짜 양주' 제조·판매 일당 검거

전국의 유흥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양주를 수거해 새 양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덕진경찰서는 2일 대전 유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 가짜양주를 제조·판매한 업주 최모(53, 남)씨와 종업원 이모(30)씨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종업원 김모(29)씨 등 29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액 이모씨를 중심으로 인천, 수원, 부산, 전주 등 전국의 유흥주점을 돌며 남은 양주가 담긴 500ml 생수병을

병당 5,000원의 가격으로 수 만병을 매입했다. 이들은 매입한 양주와 저가 미트 양주를 섞어 만든 불법양주를 병당 약 15만원에 판매해 현재까지 4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주병에 설치된 위조 방지 병마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양주병 뚜껑을 비닐커버로 밀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술에 만취한 손님들에게는 웨이터가 주방에서 병마개를 미리 따서 내놓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한지, 유럽을 매료시킨다

한지산업지원센터,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다큐이 인형 프랑스 전시

전주한지에 한국의 문화적 가치를 담은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다큐 인형'이 프랑스에 소개된다. 전주한지 제조된 다큐인형이 유럽에 전시되면서 전주한지의 세계화에도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산업지원센터는 2일부터 오는 6일까지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프랑스 국제문화유산 박람회에서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다큐이 인형을 전시한다. 다큐이 인형은 또 오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파리 7대학에서 3주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외규장각 의궤 반

차도 다큐이 인형은 한지산업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145년 만에 프랑스로부터 반환(대여)된 조선시대 외규장각 의궤 중 가장 화려한 영조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행렬을 한지공예로 재현한 것의 일부이다. '역사(歷史) 공예(工藝)와 만나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프랑스에서 돌아온 297책의 의궤 속 한지에 그림으로 표현·기록된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을 전주한지를 활용한 한국의 전통공예로 재현, 한국의 세계기록문화유산의 위상과 한지공예의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지산업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다큐인형 464명과 말 71필, 가마 2기, 기타 의장류 576여점 등 영조정순왕후 가례 반차도 행렬 50면 중 14면을 제작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제작된 전체 열의 약 30%가 전시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전주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전주한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제정하고, 전주한지 산업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등 전주한지의 전통보전과 세계화 등 한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전주한지의 비전을 '전통문화지원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보장'의 책무성 있는 한지(K-Paper) 문화산업 도시 고도 조성'으로 잡고, △한지장인 지정 △전통한지 제조기반 조성 △타인프라 구축 △한지산업진흥법제정 등 22대 중점 전략 분야를 추진기로 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전주한지 산업 육성을 본격화 했다. 시는 또 외교부, 전북도와 지난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주시애틀총영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 주모로코대사관 등 재외공간의 핵심공간인 접견실과 만찬장, 응접실, 민원실 등을 한지의 멋을 살린 한스타일로 연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시는 올해 2학기 전주시 초등학교 3학년 사회교과서를 한지로 시범 제작 배포하고, 전주한지의 전통을 세계적 명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주한지정인 발굴에 나서는데 전주한지의 자변화대와 체계적인 보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재 기자

아들 여친 성폭행한 아버지 실형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버지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강간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6일 전주시 금암동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19)씨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아들이 잠서 외출한 틈을 이용 A씨의 손발을 결박하고 누르는데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 놀러온 아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파렴치한 아버지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강간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6일 전주시 금암동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 A(19)씨가 목욕을 마치고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러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아들이 잠서 외출한 틈을 이용 A씨의 손발을 결박하고 누르는데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할 점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이 범행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

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원름서 현금 훔친 30대 입건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 A원룸에 침입해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박모(31, 남)씨를 형사 입건했다. 박모씨는 CCTV가 없는 구식 원룸건물을 위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이 같은 범행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안마시술소, 편의점 등 5개소에서 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부정사용했다. 피의자 신변파악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박모씨가 PC방에 자주 출연한다는 제보를 입수, 박모씨가 사용한 PC의 로그기록 추적해 검거에 성공했다. /김민근 기자